

# 『간호법 제정 총결기대회』

**간호법 제정!!! 역사적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간호법 제정!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마지막 고비에 서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발의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이 같은 날 동시에 발의하였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이 함께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60여일 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10여년 만에 다시 간호단독법을 제정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좌절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110여년 만에 간호단독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13년 제정된 「의사규칙」과 별도로 1914년 「간호부규칙」이 있었으나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폐지된 이후 간호단독법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2005년, 2019년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되었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며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모두 네 차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현재 우리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더 이상 후배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호정책은 사실상 전무하였고, 간호사는 열악한 환경으로 간호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이 같은 아픈 역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 모두는 기꺼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다시 간호법 제정을 외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 모두는 지금 비통한 심정을 누르고, 다시금 힘을 내어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 앞에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고자 합니다.

이제 더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꺼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목숨마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48만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12만 예비 간호사 여러분!**

**깨치고 나와 여한이 없도록 부딪혀 싸웁시다!**

당장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돌보고, 학교에서 열심히 학문을 깨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들은 그것이 아니라, 깨치고  
나와 새 세상을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여한이 없도록 부딪혀 싸우라고 말합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간호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싸웁시다!

**2022년 11월 2일, 『간호법 제정 총결기대회』에 반드시 동참합시다!**

11월 2일 수요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절규를 들려주십시오. 대한  
간호협회 임원 모두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정기 국회내에 간호법이 통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인간다운 간호 돌봄과 국민 건강 수호의 첫 발이 될 것이며, 간호사의  
열악한 현실을 깨뜨리고 우리 후배들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역사적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2022. 10. 24.

대한간호협회 임원 일동